Contribution

물류관리사의 소임

- 물류관리사는 물류전문가이다 -

박 정 섭
(사)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

물류관리사협회의 회장으로서 물류관리사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한 발표를 해온 터이지만, 물류관리사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어렵다. 사실은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여야 할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정의를 내리기 힘든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전문가이다.

법조문에 의하면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 조사 · 연구 ·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 자격에 대한 혜택과 단체활동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물류합리화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류에 관한 기술의 진흥 또는 물류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물류관리사는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물류전문가이다. 물류 제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전부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상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수준이 물류관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류관리사에 대한 명칭은 컨설턴트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CLC(Certified Logistics Consultants)이고,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명칭은 미국의 물류관리사 자격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C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이다.

그러면 현재의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물류관리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물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60%가 학생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35세 이상의 물류관리사가 1,118 명인 것으로 보아 이들이 그 동안 물류분야에서 노력을 해왔다면 전체 물류관리사의 20.6%가 물류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아직 사회에서 물류관리사를 바라보는 것은 물류전문가보다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물류자격 취득자로서의 인식이 더 강한 것 같다. 법대로라면 지금 7년이 지나 올해 8회 물류관리사가 되는 시점에

서 물류관리사 사무실이 생길만도 하지만 아직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물류관리사 시험에 도전한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없고, 그럴싸한 문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한다. 최소 3개월 이상을 투입해야 합격이 가능한데, 더운 여름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함에도 시험을 본다. 특별한 혜택, 특히 취업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의무고용도 없지만, 국가공인자격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이 앞으로의 중요사업이 되리라는 미래의 비젼을 보고 응시한다.

나는 보장이 없음에도 비젼만으로도 시험을 보는 분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물류의 비젼을 보았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물류전문가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전문가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하는데 이제 이론 중에서도 기본을 익혔을 뿐이기에 입문한 수준이다.

사회에서는 물류관리사가 전문가보다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여기서 비롯된다. 고무적인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융권으로의 확대 및 물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론을 갖추기 위해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물류관리사는 이렇게 취업희망자와 전문가가 공존한다. 그래서 물류관리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류관리사보를 두자고 건의하고 있다.

물류에 대한 실무경력을 쌓은 연후에 물류관리사로 자격을 부여하면 해당자는 물류의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물류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관리사만이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고,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류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후배들의 진입이 많아야 한다. 오늘날 이공계의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유능한 인재가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물류관리사 시험에 지원하는 물류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물류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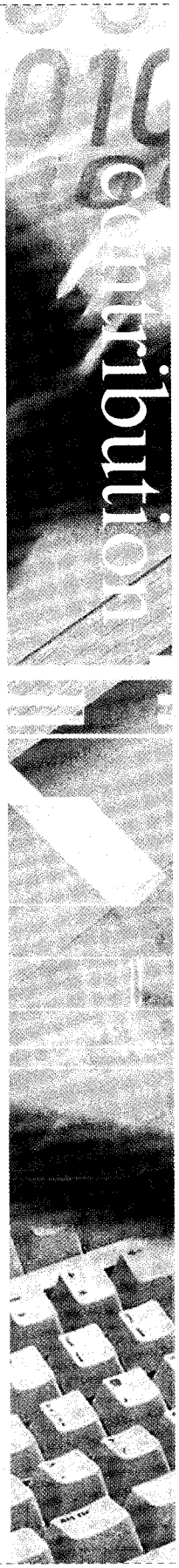
■물류산업은 차세대 미래산업

그래서 물류관리사협회는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물류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래서 동북아 중심이 되는 중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위해 물류전문인력을 주요분야로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지난 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물류관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자격취득자에 대한 물류전문가가 되기위한 안내와 현 물류관리사들의 기업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물류산업의 큰 흐름을 익혀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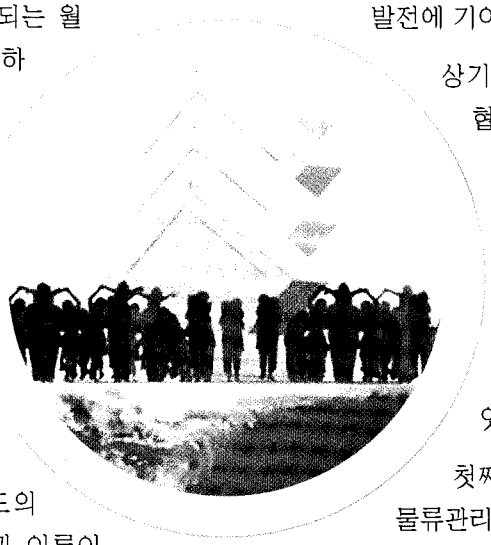
둘째는, 아직 시도하지 못했지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물류분야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물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동의 인식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우리나라의 물류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셋째는, 물류관리사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학교 졸업자에게는 기업체의 요구에 응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어 전문가로서의 양성을 유도하고, 기 취업자들의 전직과 전문가들이 물류분야의 컨설



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자료와 전문분야에 대한 자료 및 경력사항등을 갖추고 기업의 물류자원 소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넷째는, 물류분야의 이론 및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물류는 업종별로 나름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범용물류를 행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또한 아직 범용 활용 가능한 이론 이외에 전문적인 업종별 물류에 대한 교류가 없기에 전문가를 더욱 전문가가 되게하고, 초보자도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월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다섯째는, 물류전문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해에 발간한 Logistics Times를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발전시키고, 가능하면 1년에 4회 정도를 발간할 정도의 많은 실무적 혁신사항과 이론이 발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특히 물류관리사는 현장의 개선 등의 컨설턴트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라 이를 해소하기위해 물류에 대한 최신의 경향과 심화된 내용의 물류관리사 교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재발간뿐만아니라 물류분야의 심화된 전문 서적의 편찬과 종합과정을 만들어 물류전반에 걸쳐서 특히 물류영역전반에 걸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진정 Logistician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준비하여 Logistics Knowledge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싶다.

여섯째는 전문가로서의 물류현실에의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지난 2002년 동북아물류중심국가를 모토로 한 이후 지난해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확고해졌지만, 지각에 비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기존의 제조업 우대 정책에서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물류전문가로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상기의 내용은 물류관리사 협회의 소임이며, 나의 포부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다.

첫째는, 재정의 문제이다. 물류관리사에 대한 신분 및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협회등의 지원이 전적으로 회원과 독지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관리사가 제도상으로도 보장이 되면 좀더 많은 자격자가 협회에 가입하고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아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같이 고소득의 전문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로 부터의 지원이 없고, 국제협력사업을 해야하는 데 아직 협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더욱 어려운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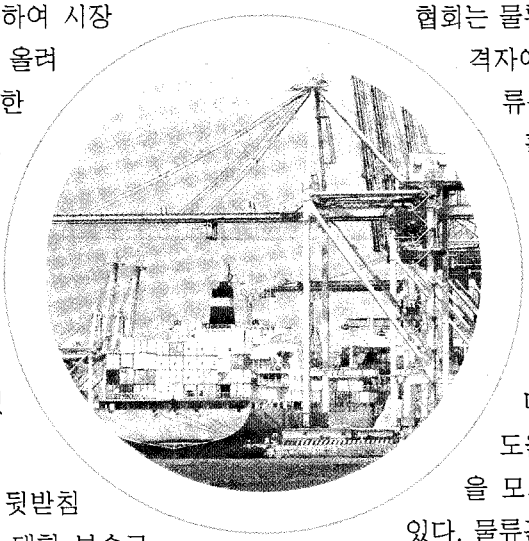
둘째는, 물류관리사의 참여이다. 협회의 목적이 물류관리사의 권익신장인데, 물류

[물류관리사의 연령대별 구성]

2003.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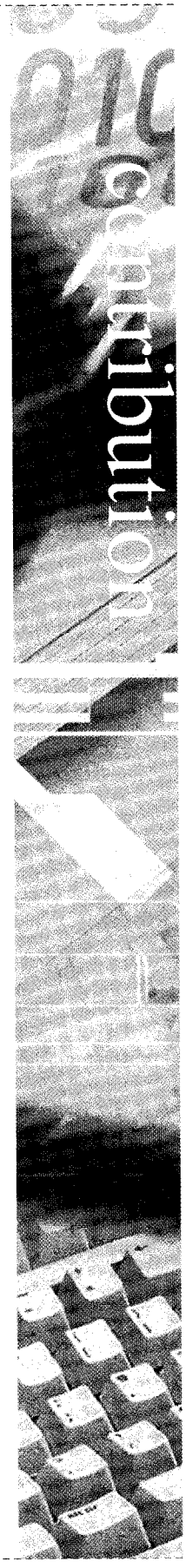
연령대	20대 (20~29)	30대 (30~39)	40대 (40~49)	50대 (50~59)	60대 (60~69)	70대	합계
인원(명)	2545	2035	694	141	21	1	5437
비율(%)	46.8	37.4	12.8	2.6	0.4	-	
비고	30대중 35세 이상은 261명으로 0.4%임, 전체 35세 이상은 1,118명 20.6%임						

관리사의 대부분은 자격증취득에 따른 취업여부에만 관심이 있고, 취업이 협회의 발전을 통해서 더욱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물류수준을 향상시키며, 자격자 개개인의 전문성을 배가하여 시장에서의 가치를 더욱 올려줄 것이라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협회의 살림은 사실 물류관리사 전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회비만 내주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물류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소양교육등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모두 자율적이다 보니, 이러한 것이 오히려 물류관리사의 전문성제고와 발전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시험에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골프를 쳐보니 한번 샷이 성공했다고 해서 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늘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자율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물류전문가가 있고, 그 안에 물류자격을 획득한 자격자로서의 물류관리사가 있다.

■물류전문가를 협회에 영입

협회는 물류전문가의 단체로서 자격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물류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2003년에는 김웅진, 홍성욱교수 등 많은 전문가를 협회에 모셨고, 협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재정고문등을 모셔서 다소 지원을 받고 있다. 물류관리사협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많은 전문가와 후원자를 필요로 한다. 물류관리사 협회는 물류분야의 많은 협회중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의 하나이다. 물류발전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조를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영역 내에서의 부단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회는 사회의 요구, 관심과 더불어 발전해 가는 것으로서 협회발전을 통해 대승적인 물류전문가의 육성과 역할수행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데 작은 힘을 보태는 그런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물류